

# 광산구, '영구임대 늘행복 프로젝트' 전국 관심

### 주민들 존엄한 삶 위해 역점 추진... 지방자치경연대전 대통령상

지방자치회 복지를 선도해 온 광주 광산구가 대한민국 복지 혁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늘행복 프로젝트는 전국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광산구 통합 돌봄 모델에도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광산구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6개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이번 지방자치경연대전은 전국 81개 광역·기초자치단체 227개 정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광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영구임대 늘행복 프로젝트'로 도전해 당당히 대상인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그동안 고령화, 슬럼화, 공동체 붕괴 등의 각종 문제를 겪어 온 영구임대아파트를 존엄한 삶의 터전으로 변화시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 머물렀던 주민이 존엄한 삶의 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활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뒷받침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의 출발점은 2019년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영구임대아파트 생활 실태조사였다. 광산구의 설명이다. 당시 3075세대, 4419명의 삶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 우울 증상 등 문제를 더불어 주민의 서비스 욕구 등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광산구는 LH, 광주도시공사, 주택관리공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의료사업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주거, 의료, 일자리, 돌봄, 공동체 등 주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에 나섰다. 이것이 바로 영구임대 늘행복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된 '영구 임대아파트 늘행복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된 뒤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 등 주민이 참여해 어르신과 장애인을 돌보며 '마을공동체 돌봄'을 구현하고, 무장애 설계를 반영한 리모델링도 61호를 완료해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향상했다. 지역주민 참여로 '늘행복건강발상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늘행복 프로젝트와 함께 성장하며 전국 최초 민관연대로 출범한 광주의료사업은 '늘행복 주치의'를 맡아 만성질환자를 위한 왕진서비스,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 같은 노력이 최근 '우리동네 의원' 개원으로 이어지면서 적정 의료, 지속가능한 공공의료를 실현할 늘행복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마을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월 최대 5만 원의 사회활동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늘행복 공동체 사업'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광산구는 그동안 고립된 섬으로 여겨지던 영구임대아파트를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꿔낸 '늘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완성형 통합돌봄 모델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복지안전망을 한 발 먼저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민과 관이 힘을 모아 포괄적인 패키지 정책으로 주민의 자존감, 존엄성을 회복하는 성과를 낸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늘행복 프로젝트를 광산구 전 지역, 광주와 전국으로 전파해 대한민국 복지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김삼호(왼쪽에서 두번째) 광산구청장이 지난 15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 참석해 광산구 대표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늘행복 프로젝트, 완성형 통합돌봄 모델로”

### 김삼호 광산구청장, 영구임대 행복한 변화 확대 전파 주력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2일 "영구임대 늘행복 프로젝트를 광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모델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에 대해선 "지난 3년간 공공행정과 시민이 힘을 합쳐 따고 눈물로 일군 뜻깊은 결과"라면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광산구의 노력과 성과가 인정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늘행복 프로젝트는 단순히 나눠주고,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삶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패키지 정책으로의 큰 전환을 이뤄냈다"며 "2019년 전국 최초 전수조사로 얻은 데이터를 반영해 종합적인 대책을 설계하고, 지역의 여러 기관, 시민사회, 주민과 힘을 모아 사

업을 추진한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큰 성과"로는 주민의 자존감, 존엄성 회복을 꼽았다.

김 청장은 "경제적 차이에 따라 차별과 소외를 당하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정액살'을 하는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한 것이 '늘행복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라면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빈곤과 차별이 없는 '지속형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대통령상 수상은 이 사업의 완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복지의 또다른 표준'을 완성하라는 존엄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우산동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로 확대, 발전시켜 광산구 전역, 그리고 광주와 전국으로 전파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29일까지 신청하세요

광주시, 1인당 10만원 지원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70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광주시가 9월 2일 발표한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장애인 1인당 10만원이며, 1회 한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14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일(9월 2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주민등록)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소득, 재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광주시 등록 장애인은 6만 9852명이다. 광주시는 복지급여제도가 있는 등록 장애인 3만 6685명(52.5%)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6일 1차 지급했으며, 복지급여 계좌가 없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한 등록장애인 2만 2285명(31.9%)은 2차(9월 30일), 3차(10월 14일)에 걸쳐 지급하는 등 광주시 등록 장애인 5만 8970명(84.4%)에게 지급을 마쳤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은 오는 29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4차는 28일, 5차는 11월 중에 지급된다.

최선영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명장과 함께 공예교실’

### 역사민속박물관 온라인 강좌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11월12일부터 12월10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소반 만들기 온라인 강좌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광주시가 지정한 한지 공예명장인 오석심 씨가 맡아 소반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전통적으로 나무를 이용해 만드는 '소반'을 탈피해 한지를 재료로 활용해 제작한다.

한지는 나무에 못잡은 내구력을 가지면서도 가볍고 다양한 형태의 변형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상판과 몸체를 분리해 상판을 열면 작은 수납공간이 나오도록 하고, 방수처리를 해 다과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다.

소반의 결면에는 야생화를 모티브로 한 색지를 붙여 우아함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062-613-5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산구, 행안부 골목경제지원 우수사례 발표 대상

광주 광산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골목경제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골목경제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9곳(대상 1, 최우수상 4, 우수상 4)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가운데, 광산구는 지난 14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발표대회에서 '산정길 골목경제협약체가 그려낸 만세 프로젝트' 사업으로 가장 높은 대상을 차지했다.

골목경제협약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주민이 답을 찾고 광산구와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가 이를 뒷받침하며 연대와 협업으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은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골목경제협약체 운영 △골목상권 만세챌린지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 △골목길방역캠페인 △안심식당 지정 확대 운동 △집객력 향상을 위한 주간판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골목을 1만 보씩 세 번 걷고 골목상권을 세 번 방문하는 골목상권 만세챌린지는 올해 3월부터 3개월 동안 6111명이 참여하면서 1억2500만 원의 매출 증가라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 걷기를 통한 면역력 증진,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일거양득 효과와 더불어 시민 만족도도 9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한 첫 역시 매출 상승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골목경제지원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IPTV 광산구 채널 활용,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광주 광산구는 20일 "경로당에 설치된 IPTV 광산구 전용채널을 활용해 노인여가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어르신의 온라인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 366곳에 와이파이(WiFi)와 IPTV를 설치했다. 이중 광산구 전용채널에서 낙상예방, 치매예방 운동법, 한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사진>

광산구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관 등이 참여해 매달 편성표를 구성, 주 5회 요일별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특히, 10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해 총 41개를 제공하고 있다. 이전 대면 프로그램은 30여 곳에서만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전체 경로당에 제공이 가능해졌다.

어르신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경



로당 소개코너'도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월 운남동 삼성아파트 경로당을 시작으로 매월 경로당 1곳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시선과 목소리로 색다른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프로그램을 시청(광산구 지역)하려면 IPTV(전용리모컨) #4839로 누르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